



29일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1차 도민경청회'서 찬반 양측이 서로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2공항 1차 도민경청회 '찬반 팽팽'

### 반대 "조류충돌 은폐·군사기지 우려... 자문위 설치 필요" 찬성 "토지수용·소음피해 최상 보상... 주민투표는 반대"

'조건부 통과'로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비등한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첫 도민경청회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면서 '난기류'에 휩싸였다. 앞으로 남은 4월 두 차례의 도민경청회도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1차 도민경청회'에서 용역진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 이후 이어진 찬반 측 대표 의견 발표와 참가자 의견 수렴·답변과정에서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여러 차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반대 측 대표 의견 발표에 나선 박찬식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은 "제2공항은 군사공항을 짓기 위한 것이며, 조류 충돌의 축소·은폐 문제 등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검토·검증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도

민 동의와 지지 없이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 국토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관철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반대 측은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인근 3km 이내의 나무를 모두 베야하고, 해안가 40km 구간을 콘크리트로 모두 막아야 한다"며 "특히 제2공항은 공군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로서 군사시설화 되는 제주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수많은 숲골도 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찬성 측 대표로 나선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은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음피해에 의한 최상의 보상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동서방향의 기존 제주공항의 악기상에 대비한 남북활주로를 갖

춘 제2공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보상 토지 수용과 소음피해에 대해 정부가 이주정책은 물론 최상의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소음피해에 대해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관광청 제주 배치에 따른 성산을 유지와 기존의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수립도 이뤄져야 한다"며 "성산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제2공항 건설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지역 환원, 그리고 제2공항 진입 30분대 가능한 도로 건설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찬성 측 관계자들은 주민투표도 이에 당사자인 성산을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맞다며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이날 경청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받아 공식 의견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백국기기자 haru@ihalla.com

## ■ 감사위, 도·행정시 대상 하천정비사업 감사결과

# 10년 단위 계획 미수립 등 하천 정비 '낙제점'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요구

제주도가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하천 관리 관련 법령 계획을 제때 수립하지 않는 등 하천정비사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2017년 7월 이후 수립한 하천 관련 각종 계획과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결과 치수계획, 하천관리분야 및 하천정비사업에 총 15건에 대해 시정, 주의, 권고,

개선방안 등이 통보됐다.

우선 도는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도에 지방하천에 대해 10년 단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특별법 권한을 이양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또 전담 조직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

구했다.

행정시의 경우 기존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집행을 부적절하게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하천공사를 할 경우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점이 감사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등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서귀포시 위미항에 조성된 WE·ME way(위미웨이).

## 위미항 수변트레킹코스 '눈길'

### 도, 위미항에 'WE·ME way(위미웨이)' 조성

서귀포시 위미항에 수변트레킹코스가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이항인 위미항에 새로운 수변트레킹코스인 'WE·ME way(위미웨이)'를 조성했다. 29일 밝혔다. WE·ME way(위미웨이)는 바다와 더불어 거닐며(Water walk), 바다가 내어준 휴식(Emotion walk), 다 같이 모여(Meeting walk), 바다의 청정한 여유(Eco walk)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위미항이 지닌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주변여건을 활용해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위미항에 해상 인도교 198m, 어항연결보행잔교 62m, 강형보도교 28m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과 함께 다기능어항(피서리나형)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공공계류시설 42선석과 항여유(Eco walk)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태윤기자

## 도-국토부 내일 웰컴센터서 15분 도시 정책 토론회 개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오는 31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 15분 도시 제주'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의 정책 방향을 중앙부처 및 도민사회와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 건축학과 백진 교수가 '모두를 위한 도시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에 나선다. 이후 국토부 윤의식 도시정책과장, 부산시 김소영 15분 도시기획단장, 서울연구원 양재섭 선임연구위원, 제주대 김형준 교수 4시간 개념을 적용한 생활권 정책을 중심으로 패널토론을 펼친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제주대 박수국 교수, 제주연구원 손상훈 연구위원,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경애 사무국장,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김성훈 팀장이 지역사회의 과제를 함께 논의한다. 강다혜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 전량 좋은 신종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에 성숙하며 과실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허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야마노스 미나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11.2021~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주문생산 | 탐밭1호, 선경, 주문생산, 설봉미, 미나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1번길1(수산리735)